

백제 여래상의 복식 연구

서미영·박춘순*†

충남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Costume of Buddha's Idols in Paekche Period

Mi-Young Suh and Chun-Sun Park*†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University*†

(2003. 4. 3. 접수 : 2003. 9. 13.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tyles of costume and understand meanings related to costume embodied in the images of Buddha in Baekche period. Visual and textual analysis of the paintings include the images of Buddha in Baekche period was used for the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ellows; Buddha's hair style is identified as simple, Gae. Buddha wears Sanghati(승가리; outer wear) made of Tongeun(통견) and Peundanwoogeun(편단우견), and many cases Sanghati made of Tongeun(통견) are usually seen. Three kinds of upper garment were identified; Samkaksika(승저지), right and left crossed upper garment, and Peunsam(편삼). Samkaksika was frequently seen in the paintings. Lower garment was a Nirāsana(니원승) reach to the ankle, was worn with a belt. Two skirts were also seen occasionally. The symbolic meaning of costume of Buddha was related to its religious meaning and identified as majesty and saintliest, which is harmonized with her simple costume styles. The wrapped style of costume, which did not show the contour of the buddha's body adds mystery. Also, the styles of costume created by different wrapping methods signify originality.

Key words: Baekche(백제), Buddha idols(여래상), costume of Buddha's idols(여래복식).

I. 서론

복식은 '한 시대의 거울'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당대의 사회적·정치적·문화적·경제적·기술적 요인 등을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는 결집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민족의 복식은 그 민족의 생활양식이나 민족성 등이 투영된 유기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민족의 복식 형태가 다른 민족에게 유입되어 수용되어질 경우, 원래의 모습대로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수용되기 보다는 수용하는 민족의 생활방식과 신앙은 물론 지리적 특색이나 정치적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이 습합되어 새로운 독자적인 양식으로 변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사상과 종교가 혼재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다양한 스타일의 복식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즉 종교는 문화의 정산적 뿌리이며, 복식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상을 담는 그

† 교신저자 E-mail : cspark@cnu.ac.kr

뜻이다. 그러므로 종교복식에는 종교사상뿐만 아니라 그 시대사상도 인위적으로 혹은 자연스럽게 담겨 있다.³⁾ 이와 같이 사상이나 종교가 그 민족의 복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대 국가인 삼국시대부터 믿어왔던 불교는 우리나라의 복식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신앙의 대상인 붓다(Buddha:佛陀)의 형상을 회화·조각 등의 조형양식을 빌어 불상으로 재현하여 숭배하고 있다. 불상은 여래(如來)의 상(像)을 의미하고 그밖에 보살상·신장상 등으로 나누는데, 실제로는 넓은 의미에서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불상이라고 한다.²⁾

西村은 불상을 여래(如來)·보살(菩薩)·명왕(明王)·천부(天部)의 4계급으로 구분하였는데³⁾ 여래급은 석가여래·약사여래·아미타여래 등의 불(佛)을, 보살급은 성관음보살(聖觀音菩薩)·11면 관음보살·11면 천수(千手)관음보살·여의륜(如意輪)관음보살·지장보살 등의 불을 지칭한다. 그리고 명왕은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는 부동(不動)명왕·애염(愛染)명왕·대위덕(大威德)명왕 등을, 천부는 비사문천(毘沙門天)·사천왕·12신장·인왕(仁王) 등을 일컫는다.

이와 같이 불상을 구분하여 볼 때 가장 먼저 조성된 불상은 천부이다. 그런데 천부는 불교가 성립되기 전부터 토착신앙에서 숭배되던 신들인 만큼 순수한 의미에서 불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순수한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숭배의 대상으로 가장 먼저 조성된 불상은 여래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이어 보살상, 명왕상의 순서로 조성되었다.⁴⁾

그런데 여래는 의역하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覺者), 진리에 도달한 사람이란 뜻으로⁵⁾ 부처를 말하고 있으므로⁶⁾ 여래상은 종교적인 면에서 불교의 교리와 사상이 가장 잘 구현된 불상이며 불상 연구에

있어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고대 국가 중 하나인 백제시대에 조성된 불상 가운데 여래불상을 대상으로 하여 복식 표현의 기법과 의미를 분석해 봄으로써 백제 불상복식의 위상을 밝히는데 목적을 둔다. 백제시대에 조성된 불상 가운데 여래상에 대한 선행 연구가 다소 있었지만 대부분 미술사학적 측면에서 조형양식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부가적으로 복식에 대해 언급하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복식사적 측면에서 검토의 필요성은 부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여래상은 미소, 눈매, 얼굴 표정은 물론 몸의 자세 등에서 깨달음을 얻은 자의 모습을 나타내기 충분하기에 굳이 화려한 장식이 필요 없는 단순한 복식으로 표현되었다.⁷⁾ 즉 그 자체의 이상적인 모습을 구현함으로써 주변의 인위적인 화려함이 없이도 숭배의 대상으로서 그 위대함이 충분히 표현된 불상이 바로 여래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하지만 조성 당시의 복식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여래복식의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 여겨진다.

이 같은 백제 여래불상 복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소기의 결과를 도출한다면 백제 불상 복식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백제시대의 복식 표현뿐 아니라 백제인들의 의식구조와 생활양식, 미의식(美意識)의 일단을 이해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연구 방법은 출토된 유물의 도판(圖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박물관도록(博物館圖錄)의 도판을 대상으로 하여 백제 불상복식의 형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불상의 백제 전래

백제에 불교는 제15대 침류왕 원년(384)에 동진(東晉)으로부터 호승(胡僧) 마라난타(摩羅難陀)가 음

1) 임상임, "한국 신종교 의례복식의 특성에 관한 연구," *服飾文化研究* 5권 1호 (1997. 4), p. 52.

2) 부산세계대백과 EnCyber. 姜友邦, *한국 불교 조각의 흐름* (대원사, 1995), p. 43.

3) 西村公朝, "佛像の服裝," *佛教美術* 第6卷, p. 33.

4) 秦弘燮, *韓國의 佛像* (일지사, 1989), p. 52.

5) *Ibid.*, p. 36.

6) 최근덕, "儒敎와 佛敎에 있어서의 理想的人格," *佛敎研究* 제15호 (1998), p. 39.

7) 崔永順, "韓國의 菩薩服飾에 관한 研究" (중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1), p. 1.

으로써 시작되었다.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에는 고기(古記)를 인용하여 마라난다가 중국을 거쳐 백제에 들어온 인도승(印度僧)임을 밝히고 있다.⁸⁾ 침류왕은 그를 맞이하여 궁내에 두고 예경(禮敬)하였으며,⁹⁾ 그 이듬해인 385년에는 한산에 불사를 세우고 승(僧) 10인을 출가시켰다.¹⁰⁾ 아신왕 원년(392)에는 ‘불법을 숭신하여 복을 구하라’는 영을 내렸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백제의 불교는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불교가 백제사회에서 융성하게 된 것은 제26대 성왕대(523~553)서부터 시작하여 다음 위덕왕대(554~597)와 법왕대(598~599)를 거쳐 무왕대(660~640)에 이르는 약 100년간이다.¹¹⁾ 이들의 왕명이 거의 대부분 불교적인 이름이었다는 점에서 백제 불교의 국가적 장려를 짐작할 수 있다. 또, 현재 남아 있는 절터나 절터 사원 유적, 유물 등이 부여 지방을 중심으로 산재되어 있어 부여 도움기¹²⁾가 백제 불교의 중흥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¹³⁾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하여 성왕 이후 백제왕들은 적극적으로 불교를 수용하고 일본에 전수하는 등 불교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으며, 백제에서 불교의 위치를 짐작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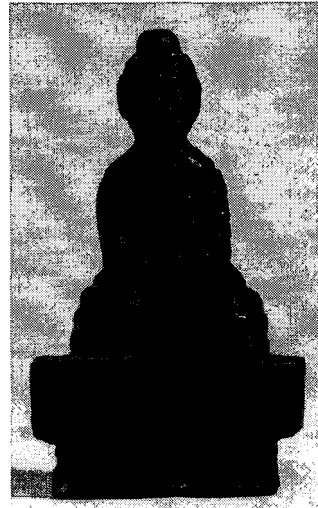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불상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 즉, 중국의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시대 전진(前秦)의 순도(順道)에 의해 불교 경문(經文)과 함께 전래되었다.¹⁴⁾ 고구려보다 10여년 뒤에 불교를 받아들인 백제는 불상 전래에 대한 확실한 기록이 없으나, 불교가 처음 전해진 다음 해(385)에 절을 지은 점으로 보아 이 때에 이미 불상이 있었을 것이다.¹⁵⁾ 한산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북섬 출토 불상은 불과 5센티미터의 작은 여래상으로 방형대좌(方形臺座)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이는 기원 400년경 중국으로부터 한반도에 건너온 초기불상의 하나로 백제 초기 불상의 형

태를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양식의 하나가 부여 신리 출토 백제조성의 여래좌상(그림 1)에서 보인다.

백제 조상사(造像史)에 있어서 참된 구체화의 시기는 성왕대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다.¹⁶⁾ 그래서 진정한 백제인에 의해 백제인의 정서를 담은 종교적 표상으로 만들어낸 성왕 이후의 불상을 백제 불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이 시기의 불상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치, 문화 또는 경제에 이르기까지 안정을 찾은 시기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Ⅲ. 백제 여래상의 복식

백제의 불상은 매우 은화하고 순박한 소위 자연



<그림 1> 金銅製選定印坐像.

扶餘 新里 출토.

「한국불교조각의 흐름」 p.149.

8) 海東高僧傳, 卷一 流通一 釋摩羅難陀條. 按古記, 本從竺乾 入乎中國.

9) 三國史記, 卷 第二十四 本紀二 枕流王 元年 九月條. 胡僧摩羅難陀自晉至, 王迎致宮 內禮敬焉, 佛法始於此.

10) 三國史記, 卷 第二十四 本紀二 枕流王 二年 二月條. 創佛寺於漢山, 度僧十人.

11) 安啓賢, “百濟佛敎에 關한 諸問題, 韓國佛敎文化的 研究,” 백제연구총서 제4권 (2000), p. 183.

12) 백제의 문화는 도읍(都邑)이 바뀔에 따라 한성시대(漢城時代 : B.C.18~A.D.475), 웅진시대(熊津時代 : A.D.475~538) 사비시대(泗水時代 : A.D. 538~660)로 나눌 수 있다.

13) 국립부여박물관, “백제의 불교문화” 불교미술실 (상화출판사, 1997), p.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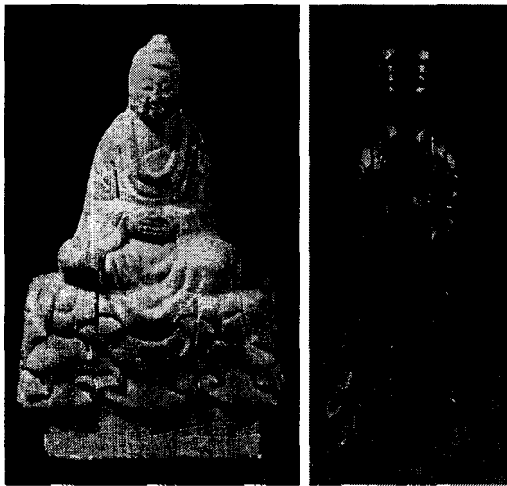
14) 三國史記, 卷 第十八 高句麗 本紀六 小獸林王 二年 六月條. 秦王苻堅遣使及浮屠順道, 送佛像·經文…….

15) 秦弘燮, *Op. cit.*, p. 128.

16) 黃壽永, “百濟의 佛敎彫刻” 韓國佛敎文化的 研究,” 백제연구총서 제4권 (2000), pp. 288-290.

주의적 색채가 농후하며 얼굴에는 ‘백제의 미소’¹⁷⁾라고 하는 백제 특유의 미소를 지니고 있다. 불상의 수인(手印)은 어떤 여래상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백제 여래상에는 부여 신리 출토 금동여래좌상(그림 1)과 같이 두 손을 결가부좌한 발 위에 포개어 놓은 선정인좌상(禪定印坐像), 서산 보원사지 출토 금동여래입상(그림 3)과 같이 오른손은 들어 손바닥을 보이며 왼손은 내려 손바닥을 보인 시무외(施無畏)·여원인(與願印) 입상과 좌상 등이 있는데, 현존하는 불상 중에는 시무외·여원인 상이 더 많다.

여래는 불계(佛界)에서 그 지위로 볼 때 최상의 존재이므로 몸에도 최고의 것을 걸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간소한 차림으로 나타나고 있



〈그림 2〉 石彫如來坐像. 〈그림 3〉 金銅如來立像.

다. 석존이 출가할 때 왕자로서의 장식을 일체 제거하고, 1장의 포(布)를 몸에 걸치고 성(城)을 나와 6년 동안의 긴 고행 끝에 불타가 되었을 때는 닝마가 된 포를 몸에 걸치고 있었을 것이다. 이 닝마가 된 여래의 의복을 남의(衲衣)¹⁸⁾라고 한다. 이러한 남의는 불교의 해탈과 관련된다. 불타는 모든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해탈하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삼아서 그 길을 터득하였고, 그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물욕(物慾)은 마땅히 제거되어야 하는 첫째의 수행덕목이었다. 그래서 비구들이 입는 의복도 두엄 중에 담람이 못쓰게 되어 버린 분소의(糞掃衣)를 주워서 빨아 기워 입도록 하였다.¹⁹⁾

이와 같이 여래는 보살이 현실의 왕공귀인(王公貴人)의 모습처럼 온 몸을 화려한 영락(瓔珞)과 천의(天衣), 지물(持物) 등을 통해서 세속적인 화려한 모습으로 표현된 것과는 달리, 화려한 장신구를 걸치지 않은 간소한 차림이다. 백제 여래상에서도 소박한 차림의 복식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장식을 하지 않은 백제 여래상에 표현된 복식을 두발과 의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두 발

불상의 두부는 다른 부분에 비하여 손상이 심하고, 또 이후에 개조된 상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두발의 형태를 고찰함에 어려움이 많다. 풍부한 머리술은 첫째로 꼽히는 귀인상(貴人相)의 하나로 “두포(頭布)를 쓸 수 있는 두발(頭髮)” 또는 “관식(冠飾)을 붙일 수 있는 두발(頭髮)”로 여래의 상투는 높고 클

것이지만 실제 불상에 나타나는 것은 이 같은 남의는 아니다. 그것은 조형적으로 그렇게 나타내지 않았을 뿐 실재로는 남의로 이해하여야 한다.²⁷⁾ 좌용 형태는 양견(兩肩)에 걸친 통견(通肩)과 우견(右肩) 한쪽만을 내놓은 편단우견(偏袒右肩)의 두 가지로 나타난다.

간다라불(佛)의 승가리는 양쪽 어깨를 모두 감싼 통견의(通肩衣)로 신체 전체가 두터운 옷에 가려져 있으며, 옷주름은 사실적이어서 신체의 굴곡에 따라

형태가 좌우 대칭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의 불상이 류송(劉宋) 원가(元嘉)14년(437)명 선정불좌상(그림 5)과 같이 목 부분부터 주름이 만들어져 목 주위에 승가리가 바짝 둘러진 것과 대조적으로 백제 여래상은 목 주위에서 속옷이 보이며 거의 허리 가까이 아래로 U자를 그리며 자연스러운 드레이퍼리(drapery)를 형성하고 있다. 고구려의 여래상에서도 원가(元嘉)14년(437)명 선정불좌상(그림 5)과 같은 모습은 볼 수 있는데 백제 여래상은 바깥에

수 없으니 맨 상투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²⁰⁾ 백제 여래상의 두발 형태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소발(素髮)²¹⁾에 육계(肉髻)²²⁾가 큰 불상은 부여 신리 출토 금동여래좌상(그림 1), 서산 보원사지 출토 금동여래입상(그림 3) 등에서 볼 수 있다. 이 여래상에 나타난 육계는 높은 것에 반하여 부여 군수리 출토 석조여래좌상(그림 2), 태안 마애삼존불 여래상(그림 4)과 같이 보다 작게 표현된 여래상도 있다.

이와 같이 백제 여래의 두발은 장식이 없는 육계로 단순한 형태이며 보관을 쓴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여래상이 보관을 비롯한 장식적인 것을 지니지 않는 것이 특징인 점을 잘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의복 형태

일반적으로 불상의 복식은 승려의 법복(法服)과 같다. 승려의 법복은 삼의(三衣)라 하여 크기 순으로



〈그림 4〉 泰安厓窟三尊佛.

「한국불교조각의 흐름」 p.181.

승가리(僧伽梨, 僧伽梨 Sanghāṭi), 울다라승(鬱多羅僧 Uttarasāṅga), 안타회(安陀會, 安怛羅婆娑, 安陀衣 Antaravāsa)로 석가모니가 친히 제정하여 전해 온 것이다.²³⁾ 승가리는 외출시·엄숙한 법회·왕궁에 갈 때·마을에 갈 때 맨 겉에 입는 옷이다. 울다라승은 부처를 예배시·좌선시·칭강시·예참시·독경시·공양 받을 때 승려들이 주로 입는 옷이다. 안타회는 절에서 일할 때·길에 다닐 때·여행할 때·잠 잘 때 착용하는 옷이다.²⁴⁾ 한 벌을 입을 때는 가장 겉옷인 승가리를 입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안타회나 울다라승을 받쳐 입는다. 승가리가 법복의 근본으로 여래와 비구가 항상 착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이의(二衣)는 이에 모방하여 끼워 입는 것이 허용된 보조 법복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초기 불전도에 나타난 불상의 의복은 승복과 함께 승가리와 니원승만이 표현되었다.²⁵⁾ 백제 여래상도 이러한 승가리 안에 승저지(僧祇支)와 니원승(泥洹僧, 裙) 같은 의복을 입는다. 불상 복식 구성에 대해서는 많은 서적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겠다.

1) 승가리(僧伽梨 Sanghāṭi)

승가리는 불상에서 가장 밖에 입는 의복으로 '대 의(大衣), 중 의(重衣), 가사(Kasaya)'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승가리는 장방형의 큰 천을 몸에 둘러 입는 권 의(卷衣)로 그리스의 히마티온, 로마의 토가, 인도의 사리에서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승가리는 석가모니나 그의 제자들이 직접 입던 일종의 남의(衲衣)이다. 『사분률(四分律)』에 의하면 불타가 비구승단(比丘僧團)의 법복(法服)을 밭모양(田文相)의 조각옷으로 지어 입도록 한 것은 외도(外道)와 구별되게 하고, 도적(盜賊)에게 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방(南方)의 수전(水田) 모양을 본떠서 아난(阿難)에게 그 짓는 법을 고안하게 하면서부터라고 한다.²⁶⁾ 그러므로 승가리는 본래 여러 조각의 천을 가워서 만드는

20) 黃壽永, 韓國의 美 佛像 (中央日報社, 1993), p. 95.

21) 빽빽 깎은 머리로서 승려의 전형적인 머리형태.

22) 부처의 정수리에 솟은 상투 모양의 살덩이.

23) 李智冠, 律藏比較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67), p. 125.

24) 尹良老, "菩薩像 服飾에 관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4), p. 27.

25) 崔完秀, "간다라 佛衣攷," 佛教美術 제1권(1973), p. 87.

26) 四分律, 卷第四十 衣捷度之二, T.S.22, p. 855ab. 爾時世尊 與大比丘僧 千二百五十俱 遊行南方人間 從山上下 見水田 善作畦畔 作是念 我諸比丘 應作與此衣 卽問阿難 …….

것이지만 실제 불상에 나타나는 것은 이 같은 납의는 아니다. 그것은 조형적으로 그렇게 나타내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납의로 이해하여야 한다.²⁷⁾ 착용 형태는 양견(兩肩)에 걸친 통견(通肩)과 우견(右肩) 한쪽만을 내놓은 편단우견(偏袒右肩)의 두 가지로 나타난다.

간다라불(佛)의 승가리는 양쪽 어깨를 모두 감싼 통견의(通肩衣)로 신체 전체가 두터운 옷에 가려져 있으며, 옷주름은 사실적이어서 신체의 굴곡에 따라 변화적 옷주름²⁸⁾을 이루고 있다. 이에 비하여 마투라 불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편단우견의 착의법을 보여 주며 얇은 옷이 신체에 밀착되어 있어서 언뜻 나신(裸身)의 느낌을 줄 정도이며 왼쪽 어깨 부분에 추상적인 주름이 몇 갈래 평행하여 있어서 옷을 입고 있음을 겨우 알 수 있다.²⁹⁾ 통견은 설법(說法)이나 위역(威儀)을 갖출 때, 편단우견은 재불(諸佛)과 재보살(諸菩薩), 장상(長上)에 대한 공경(恭敬)과 작무(作務)시의 착용법이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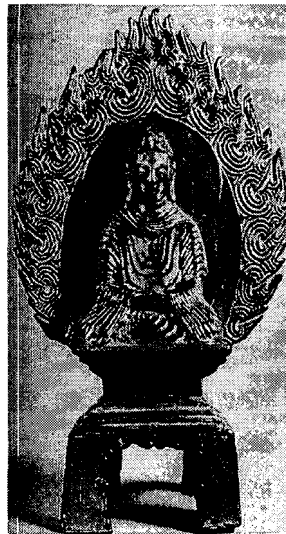
백제 여래상은 그 표현이 매우 단순하고 간략해서 승가리 착용법을 제대로 관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현재까지 승복(僧服)으로 입는 법의의 착용법과 같을 것이라 생각되어 그 착용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양견(兩肩)을 덮는 법

부여 신리 출토 금동여래좌상(그림 1)과 부여 군수리 출토 석조여래좌상(그림 2)은 양견을 덮는(通肩) 승가리 착용 모습이다. 양견을 덮는 승가리의 착용법은 장방형 포(布)의 한쪽을 속옷인 니원승(장방형의 긴 천을 하반신에 둘러 입는 하반신衣)의 허리우측 부분의 안쪽에 끼우고 왼쪽에서 뒤로 돌려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에서 천의 상단을 속치마 안쪽으로 끼워 넣어 고정하고, 다시 천을 오른쪽 옆구리에서 비스듬하게 가슴을 통과하여 왼쪽 어깨에 이르게 한 다음 목 주위를 한바퀴 돌린다. 다시 한번 느슨하게 몸통을 감싸듯이 몸 주위를 한바퀴 돌린다.³¹⁾ 이 두 여래상의 승가리는 두 어깨를 덮은 듯 걸쳐 입은

형태가 좌우 대칭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의 불상이 류송(劉宋) 원가(元嘉)14년(437)명 선정불좌상(그림 5)과 같이 목 부분부터 주름이 만들어져 목 주위에 승가리가 바짝 둘러진 것과 대조적으로 백제 여래상은 목 주위에서 속옷이 보이며 거의 허리 가까이 아래로 U자를 그리며 자연스러운 드레이퍼리(drapery)를 형성하고 있다. 고구려의 여래상에서도 원가(元嘉)14년(437)명 선정불좌상(그림 5)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백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백제만의 독특한 통견 착용 표현법이라 생각된다.

서산 보원사지 출토 금동여래입상(그림 3)은 부여 출토 여래좌상(그림 1, 2)과는 다른 모습으로 승가리가 무겁게 드리워졌으며, 착용방법은 왼쪽 목 부위부터 아래로 수직의 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천의 한쪽을 왼편 아래에 두고 위로 올라가 왼팔과 어깨를 덮고 등뒤로 돌려서 오른쪽 어깨를 덮고 천을 앞면으로 내려 팔꿈치를 구부린 오른팔을 싸면서 배 앞을 돌아서 옷 끝을 왼팔에 걸치고 있다. 이러한 승가



〈그림 5〉 元嘉14年銘禪定佛坐像. 『佛像研究』 p.236.

27) 張忠樞, *Op. cit.*, pp. 114-115.

28) 鱗波式衣褶; 파도치듯이 큰 주름과 작은 주름이 번갈아 가며 연속되는 옷주름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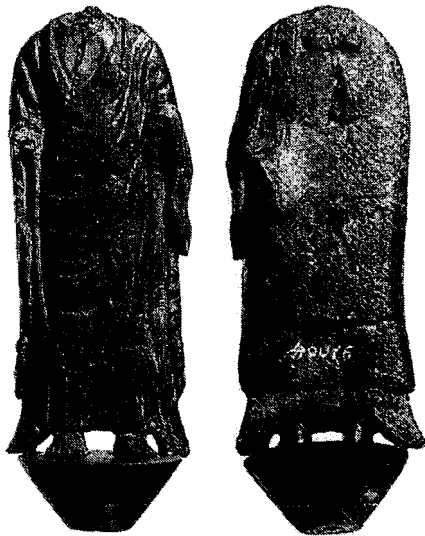
29) 姜友邦, *한국 불교조각의 흐름* (대원사, 1999), pp. 45-46.

30) 井筒雅豊, *聖媛史* (文化時報社, 1955), p. 28.

31) 任榮子, *韓國 宗教服飾* (亞細亞文化社, 1990), p. 26.

리 착용 모습은 정지원명 금동삼존불입상의 중존 여래상, 골석계 불보살 병립상의 좌측여래상 등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부여 가람리사지(佳塔里寺址) 금동여래입상(그림 6)은 승가리의 끝자락이 왼쪽 팔 대신 어깨 뒤로 넘겨진 모습이다.

서산 마애삼존불 본존(그림 7)의 착용 방법은 위와는 다른 모습으로 인도나 파키스탄 또는 아프가니스탄의 불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중국기원³²⁾인 포복식 불의이다. 포복식 불의란 중국 5세기 북위시대에 왕이 입던 의복을 여래상의 의복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 때에는 왕이 곧 부처라는 사상에 의해 불상은 완전히 중국화 되었다.³³⁾ 하지만, 포복형불의(袍服形佛衣)에 대해 장방형의 포로 이루어진 승가리의 원래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 아니고 다만 중국식 포복(袍服)이 가지는 외형적 특징을 부여한 것으로, 북위(460-470) 운강석굴 제16동 북벽본존(그림 8)과 같이 요대(腰帶)가 가슴에 표현되어 더욱 중국황제의 포복을 상징한다.³⁴⁾ 즉, 이러한 포복식 승가리도 장방형의 포를 통견으로 둘러 입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6〉 金銅佛立像.
「국립부여박물관」 p.92.



〈그림 7〉 瑞山磨崖三尊佛
中尊 如來像.



〈그림 8〉 袍服佛立像
「佛像研究」 p.340.

「한국불교조각의 흐름」 p.78.

(2) 우견(右肩) 노출법

7세기초의 전북 정읍 출토 석조여래입상 2구(그림 9)는 우견 노출법(偏袒右肩) 승가리를 입고 있다. 장방형 천을 속옷인 니원승 우측 부분의 안쪽에 끼우고 왼쪽에서 뒤로 돌려 오른쪽 옆구리에서 비스듬하게 가슴을 통과하여 좌견(左肩)에 이르러 한 다음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비스듬히 내린다. 다시 느슨하게 앞쪽에 늘어뜨리고 왼팔에 걸친다. 이는 백제 여래상에서 유일한 편단우견의 단독 원각상(圓刻像)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익산 연동리 출토 석불좌상(그림 10)은 오른팔에 상의인 편삼(偏衫)을 두름으로써 승가리를 어깨에만 살짝 걸친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승가리 착용은 중국식 착용법이다. 여기서 편삼은 상의부분에서 언급하기로 하겠다. 편단우견 착용법은 원래 마투라 불상양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굽타 조각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간다라에 영향을 미쳐 편단우견상(像)을 만들게 되지만 주류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중국에서 불경의 종합적 번역이 이루어진 이후 편단

32) 久野健, "백제불상의 복제와 그 원류," 백제연구 특집호 (1982), p. 226.

33) 姜友邦, *Op. cit.* (1995), p. 59.

34) 崔完秀, *佛像研究* (知識産業社, 1984), pp. 342-343.



〈그림 9〉 石彫如來立像(2구).
全北 정읍 출토. 「國寶2」 p.182.



〈그림 10〉 石佛坐像.
益山 蓮洞里 출토. 「韓國佛像三百選」 p.63.

우견법이 불의(佛衣)의 정장(正裝)임을 알고 다시 5세기 전반기부터 편단우견상(像)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국 습관에 편단우견은 적인복장이므로 완전 편단우견을 피하여 반단(半袒) 형태로

표현하는 특이한 양식으로 변형을 가한 것이 이와 같이 오른쪽 어깨에 살짝 걸치는 착용법이다.³⁵⁾ 그 형태는 북위(北魏) 태안(太安)3년명(457) 석가불좌상(그림 11)에서 확인된다. 백제는 중국식으로 변한 편단우견 착용법 즉, 반단 착용법을 받아들여 여래상에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이 수·당 통일왕조를 이루면서 백제에도 새로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편단우견 불상이 그 영향 중의 하나로 통견보다 늦게 받아들여진 승가리 착용법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 여래상의 승가리는 대부분 투박하고 단순한 선으로 처리하여 두꺼운 직물의 통견 승가리를 입고 있다. 그리하여 간다라 불상이 입고 있는 착용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 의(上衣)

(1) 승저지(僧祇支)

승저지는 '승갈지(僧竭支), 저지(祇支), 갈지(竭支), 승각기(僧脚崎), 승각고(僧脚鼓迦)' 등으로 번역하는데 덮는 물건이라는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여래상에 표현된 상의는 부여 군수리 출토 석조여래좌상(그림 2), 익산 연동리 출토 석불좌상(그림 10)과



〈그림 11〉 北魏 太安3年銘.
釋迦佛坐像. 「佛像研究」 p.258.

35) 崔克秀, *Op. cit.*, p. 261.

같이 승가리 안에 입는 내의의 일종으로 승저지를 입고 있다. 그 착용 형태를 보면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을 통과하여 왼쪽 어깨에 이른다. 즉, 오른쪽 어깨는 그대로 노출되는 형태가 된다. 백제 여래불상에서는 승가리를 입지 않은 불상을 접하기 어려워 확실한 승저지 착용 모습을 확인할 바는 없으나, 승가리 속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사선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 편삼(偏衫)

백제의 의산 출토 여래상(그림 10)에서 편삼의 의복 형태는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로 걸치는 승저지에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겨드랑이로 걸치는 반대의 옷(覆肩衣)이 함께 합쳐져서 이 두 의복에 깃과 소매가 붙여진 것이 편삼이다. 즉, 좌측과 우측을 덧붙여서 양변(兩邊)을 합쳐서 만든 것이다.³⁶⁾

편삼의 기원을 살펴보면 북위(北魏)의 궁전에 출입하는 승려들은 대부분 편단우견의 승가리를 입고 있었다. 그러나, 맨살로 오른쪽 어깨를 노출시키는 승려의 모습이 보기 흉하다고 생각한 궁인들은 승려에게 견의(肩衣)를 시주하고 이것을 편삼이라고 하였다.³⁷⁾ 여기에서 편삼은 북위에서 고안해 낸 복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복제가 중국 남조에도 영향을 주고, 백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3) 좌임 상의

보원사지 출토 여래입상(그림 3)은 승가리 안에 입고 있는 속옷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불상이다. 이 불상은 승저지의 여밈이 가슴에서 좌임형으로 깊게 교차된 형태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승저지가 오른쪽 어깨를 노출하거나 오른쪽 어깨를 덮었던 편삼을 입은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백제 불상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승가리 안에 승저지가 양쪽으로 여미게 입혀진 표현은 현재 알려진 바로는 백제의 불상에서만 발견되는 요소³⁸⁾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편삼의 구

성 형태를 생각해 본다면 이 불상의 속옷이 무엇인지 말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다. 바로 좌견의(左肩衣)와 우견의(右肩衣)가 합쳐진 편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불상의 승가리 착용은 편삼 위에 착용한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복 착용의 예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예는 불상복식이 그 시대 사람들의 사상을 인위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반하여 백제 사람들의 의복을 입은 불상을 표현한 것이라 여겨진다. 즉, 안에는 백제인들의 의복을 입고 겹옷으로 승가리를 입고 있는 것이다.

3) 하 의

백제의 여래입상(그림 4, 6, 7, 9)은 승가리 안에 하반신에 니원승(泥洹僧)을 입고 있다. 니원승은 장방형의 긴 천을 허리에 두르고 요대(腰帶)로 매어 입는 것으로 '니박사형(泥縛些形), 열반승(涅槃僧)', 또는 '군(裙), 군상(裙裳), 하군(下裙), 내의군자(內衣裙子)'라고도 한다. 인도에서는 도티(Dhoti)라고 하며, 하체를 가리는 가장 기본 의복으로 신분의 차별없이 누구나 입는 의복이었다. 부여 군수리 출토 석조여래좌상(그림 2)은 상현좌(裳懸座)에 표현된 니원승의 주름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니원승의 착용법은 처음에 요대없이 단정하게 입을 때 기둥을 뚫뚫 말아 감듯 하지 말고 우변(右邊)을 뒤집어 잡고 좌변(左邊)의 위쪽 끝을 잡아서 안으로 꺾어 질러 넣고,³⁹⁾ 나중에는 요대(腰帶)로 배 앞에서 잡아매어 입은 것 같다.

태안 마애삼존불(그림 4)과 서산 마애삼존불(그림 7)의 여래상은 허리에 요대의 매듭을 볼 수 있다. 요대 착용은 비구(比丘)가 띠를 매지 않고 속인(俗人)의 집에 갔다가 니원승이 풀어져 내려서 알몸을 드러내는 망신을 당했다고 한다. 그래서 불타는 비구가 니원승을 입을 때 반드시 의대(衣帶)를 매도록 규정하였고, 불타 자신도 의대를 매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⁴⁰⁾ 이러한 요대의 매듭이 금동불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하여 마애불에 나타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마애불이 성행했던 시기인 7

36) 任榮子, *Op. cit.*, p. 33.

37) 久野健, *Op. cit.*, p. 234.

38) 金理那, "百濟初期 佛像樣式的 成立과 中國佛像" *百濟佛敎文化的 研究* (경인문화사, 2000), p. 77.

39) 摩訶僧祇律, 卷第二十一 明衆學法之初, T.S.22, p. 399b. 齊整著內衣時 不得如總軸 當反執右邊 執左邊上角 屈著內.

40) 崔完秀, *Op. cit.* (1973), p. 101.

세기의 불상 표현 방법의 하나로 중국의 포복식 승가리 착용 표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 정지원 명 금동삼존불의 중존불, 남석계 삼존불의 중존불, 예산 사면석불 중존불 등의 여래상들도 니원승을 요대로 매어 입었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서산 마애 삼존불상(그림 7)의 여래상에서는 두 겹의 니원승 자락이 보인다. 밑자락이 선명하게 두 층을 이루지 않고 선으로 표시되어 있어 장식선(裝飾線)으로 볼 수도 있으나 오른쪽 끝부분에 뚜렷하게 두 층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이것을 두 벌의 니원승을 입은 것이라 보았다. 두 벌의 니원승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요포(腰布) 위에 무릎까지 걸친 짧은 요포를 입던 동남아시아의 이중요포 형식이 중국화되어 짧은 요포의 길이가 안쪽의 긴 요포와 거의 같은 길이 정도로 길어진 형태를 보여준다.⁴¹⁾ 이러한 이중요포 형태의 니원승을 입은 것은 비구니가 한 장의 니원승만으로 벗겨질 염려가 있어 한 장 더 입어 노출을 방지하였던 것이라고 한다.⁴²⁾ 그 예는 중국 북위(476-483) 운강석굴 제6동 불상(그림 12)에서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중요포의 여래상도 6



〈그림 12〉 袍服三尊佛立像의 中尊.
『佛像研究』 p.350.

세기의 것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7세기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백제로 들어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백제 여래상에 나타난 복식을 살펴보았는데, 보관을 쓰지 않은 단순한 두발에 의복에서도 어떠한 장신구도 걸치지 않은 모습이였다. 이는 여래상의 소박한 차림이 갖는 특징적 의미를 잘 따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IV. 백제 여래상 복식의 표현미 분석

1. 신성성(神聖性)

종교가 전래될 때 사상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것들도 그대로 전래되는데, 그것은 종교가 갖는 존엄함과 성스러움을 인간의 미약함으로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이유에서일 것이다. 종교에서 무엇보다 상징적인 것이라 여겨지는 종교상(像)은 두 말할 것도 없으며, 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백제 여래상의 복식은 최고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간소한 복장을 하고 있다. 이는 인도에서 불교 성립 당시 가졌던 여래의 신성한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여래의 의복은 불교가 발생하고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인도 불상의 복장 양식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승가리는 사리, 니원승은 도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 대중과 차이가 없이 인도의 일반복식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그래서 여래상은 백제인들이 입고 생활하던 저고리와는 다른 형태의 승저저를 상의로 입고 또, 포와는 다른 통견이나 편단우견의 승가리를 두르고 있다.

이와 같은 신성성은 의복 종류뿐만 아니라 그것을 걸치고 있는 형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석가모니가 정한 비구의 승가리 착용은 공양할 때는 편단하여 일하기에 편하도록 하고 복전(福田)을 만들 때에는 두 어깨를 덮어 받고랑의 상(相)을 나타내야 한다. 공양할 때란 부처를 볼 때, 스승에게 질문할 때, 자리를 깔 때, 땅을 쓸 때, 자리를 권할 때, 꽃을 심을 때, 빨래할 때 등이며 복전을 만들 때란 국왕에게서 먹을 것을 받을 때, 마을에 들어가 걸식할 때, 좌선하여 경을 외울 때, 나무 밑을 거닐 때 등이다.⁴³⁾ 이것

41) 정예경, 불교조각사 연구 (혜안, 1998), p. 131, p. 140.

42) 任榮子, *Op. cit.*, p. 30.

43) 秦弘燮, *Op. cit.*, pp. 82-83.

을 보면 부처의 지위에서는 편단우견보다는 통견 차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백제의 여래상의 승가리 착용법은 대부분 양견을 덮는 통견 차림을 보임으로써 공양의 대상으로 신격화된 존엄의 대상물 자체였다고 생각한다.

2. 신비성(神秘性)

백제의 여래상은 매우 단순한 선으로 두꺼운 승가리를 착용하고 있다. 이는 간다라의 통견에 두꺼운 직물 표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간다라의 중량감 있는 승가리 착용은 굵타 불상 의습(衣褶)과 중국 불상 의습 표현에 영향을 주었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간다라식의 양견을 덮는 승가리를 걸친 백제의 여래상은 공양하는 귀인들이나 왕자의 품모를 모델로 한 보살상이 상반신이 나체인 반나(半裸)로 표현된 것과 다르게 전신(全身)에 의복을 걸치고 있다. 즉, 여래상은 보살의 노출미와 대조적인 은밀한 무엇인가를 풍기는 신비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신비미는 정음 출토 여래상(그림 9)이 한쪽 어깨를 노출하고 있어 통견에 비하면 많은 노출을 보이고 있지만, 이 또한 신체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게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백제의 여래상은 신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이상적 인격 즉, 종교적 존엄의 대상으로서 갖는 신비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3. 독창성(獨創性)

여래상의 양어깨를 덮는 승가리는 그 근원이 간다라라고 볼 수 있다. 간다라 승가리는 인도에서 입는 사리와 같은 것으로 그리스의 히마티온, 로마의 토가 등을 표현한 조각상과 같이 장방형의 천을 둘러 입은 모습으로 표현되었는데, 처음부터 여러 나라의 영향을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4세기경에는 마투라 불의와 혼합되어 굵타 불의를 이루었고, 이와 거의 동시에 북중국에 영향을 주어 중국불의의 독특한 양식을 이룩하였으며 6세기말경부터는 다시 중국에서 굵타양식과 중국양식이 혼합되어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등 극동불상 의복 특유의 양식이 되었다.⁴⁴⁾

백제의 여래상이 인도에서 비롯된 불상을 기본으로 중국을 거쳐 전래되었기에 그 나라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불상이 같은 형을 그대로 본뜨기만 한다면 모든 나라와 시대에서 오직 유일(唯一)의 불상 한가지만 존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출토 불상들의 모습은 다 똑같은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불교의 조건에 따라 달리 해석하는 역동적이고 생성·변화하는 자유로운 사고 방식이 불상의 무수한 도상의 창안을 만든 것이다. 백제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도상이 창안되어온 것도 그러한 불교의 독특한 경향에 말미암은 것이다. 백제의 여래상에서 무엇보다 특징적인 여래상은 서산 보원사지 출토 금동불입상(그림 3)이라 하겠다. 이 여래상의 좌인형 상의는 그 어떤 예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백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군수리 출토 여래좌상(그림 2)은 양견을 덮는 승가리 착용 형태에서 독창성을 보인다. 다른 나라의 통견 차림이 목둘레에 바깥 돌려져 내의(內衣)를 관찰할 수 없었으나, 이 여래상은 목둘레가 여유 있게 허리 가까이 U자를 그리며 자연스러운 드레이퍼리(drapery)를 형성함으로써 안에 입은 승저지를 관찰할 수 있다.

V. 결론 및 요약

백제 여래상의 복식은 장식을 하지 않은 간소한 복식차림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발과 의복형태(승가리·상의·하의)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여래상의 두발은 모두 소발에 육계형으로 보살상이 화려한 보관을 쓰는 것과 다르게 소박한 모습이다.

의복으로는 겉옷으로 양견을 덮는 통견과 우견(右肩)을 드러낸 편단우견의 승가리를 걸치고 있는데, 통견이 일반적이다. 이 통견도 착용 형태에 따라 세가지로 나뉜다. 양어깨를 감싸고 뒤로 젖혀진 형, 왼쪽 어깨를 덮고 오른쪽 어깨와 팔을 감싸고 왼팔에 걸친 형(어깨에 걸치기도 함), 중국 5세기 북위시대에 이르러 왕이 곧 부처라는 사상이 일어나 중국황

44) 崔完秀, *Op. cit.*, p. 110.

제의 포복을 두른 포복형 승가리가 그것이다.

승가리 안에 상의로 승저자를 입고 있다. 그밖에 보원사지 출토 여래입상은 좌입 상의, 익산 출토 여래좌상은 편삼 착용을 나타낸다.

하의로 입은 니원승은 장방형의 긴 천을 허리에 두르고 요대(腰帶)로 매어 입는다. 니원승은 발목 길이로 한 벌을 입고 있으나 서산 마애 삼존불상의 여래는 두 벌을 입고 있다.

이와 같은 백제 여래상 복식의 표현미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여래상 자체가 종교적인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장식이 보이지 않는다. 또, 여래의 복 종류는 인도 일반복식을 입고, 그 착용 형태는 통견의(通肩衣)를 입고 있다. 이와 같은 여래상의 복식 차림은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신격화된 존엄의 대상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둘째, 여래상은 투박한 통견의 승가리를 두르고 있어 신체의 윤곽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어 보살의 노출미와 대조적인 신비미를 갖고 있다. 이것은 종교 대상으로서의 여래상 신체에 대한 신비감을 더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여래복식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도상이 창안되었다. 그것은 백제의 불상이 외국에서 들여온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백제인의 독창성을 불상에 발휘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상으로 백제 여래상 복식의 표현미에 대해 살펴해보았는데, 여래상은 자체가 종교적인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장식하지 않은 간소한 복식이 존엄함과 성스러움을 더하여 주는 요소가 되었다. 또한 몸매를 드러내지 않은 복장은 여래에 대한 신비감을 더하여 주었고, 그 복식 표현 양식에는 보편성과 독창성을 함께 가지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하나의 종교 대상인 백제 여래상의 복식 표현을 고찰함으로써 그 당시 자료가 적어 어려움이 있는 백제 종교 복식의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大寶積經
摩訶僧祇律

方廣大藏經

四分律

三國史記

海東高僧傳

姜友邦 (1995, 1999). 한국 불교 조각의 흐름. 대원사.

久野健 (1982). "백제불상의 복제와 그 원류." *百濟研究* 특집호.

국립부여박물관 (1997). 국립부여박물관 삼화출판사.

국립중앙박물관 (1990). *三國時代佛教彫刻*

國寶2 (1992). *金銅佛·磨崖佛* 응진출판사.

金元龍 (1978). *韓國美의 探究* 悅話堂.

文明大 (1995). *韓國彫刻史* 열화당.

벤자민 로울랜드 저, 인도미술사, 이주형 역 (1996). 예경.

杉本正年 著, 동양복장사논고 문광회 역 (1995). 경춘사.

西村公朝. *佛像의 服裝, 佛教美術* 6. 日本.

安啓賢 (2000). "百濟佛敎에 關한 諸問題." 백제연구총서 제4권.

尹良老 (1984). "菩薩像 服飾에 關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李能和 (1974). *朝鮮佛敎通史* 上篇. 東京: 國書刊行會.

李智冠 (1967). *律藏比較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임상업 (1997). "한국 신종교 의례복식의 특성에 관한 연구." *服飾文化研究* 5권 1호.

任榮子 (1990). *韓國 宗教服飾 亞細亞文化史*.

張忠植 (1983). *韓國의 佛像* 東國大學校 佛典刊行委員會.

정예경 (1998). 불교조각사 연구. 레안.

井筒雅風 (1955). *袈裟史* 日本: 文化時報社.

崔永順 (1991). "韓國의 菩薩服飾에 關한 研究"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崔完秀 (1973). "간다라 佛衣攷." *佛敎美術* 제1권.

崔完秀 (1984). *佛像研究* 知識産業社.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2000). *韓國佛敎文化의 研究* 경인문화사.

韓國의 美 (1993). @불상 중앙일보사.

黃壽永, 秦弘燮, 鄭永鎬 (1984). *韓國佛像三百選* 한국정신문화연구소.

黃壽永 (2000). "百濟의 佛敎彫刻" 백제연구총서 제4권. <http://encyber.com>